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회차	30-1차 임시	일자	2021.07.22. 20:00	장소	온라인

0 성원점검

간호대학	경영경제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X	O	O	O	O	O	X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통일공대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계
O	O	O	O	O	O	11/13

<개회>

총: 보고안건은 차주 중운위 회의에서 받도록 하고 바로 논의안건으로 넘어가겠다.

1 논의안건

1. 2021-1학기 등록금환불 관련 자료 검토

총: 2021-1학기 등록금환불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바 있고, 자료를 전달받았다.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총: 첫 번째로 코로나19 검역소 출입인원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료 검토 시간 1분 갖도록 하겠다.

[자료 검토]

총: 다음으로 3년도 강의평가 분석자료 검토 시간 갖겠다. 2분 간 검토 시간 갖도록 하겠다. 공지방에 한 번 더 올려드렸다.

[자료 검토]

총: 다음으로 2학기 원격수업 안내 자료 검토하겠다. 2분 간 검토시간 갖도록 하겠다.

[자료 검토]

총: 네. 본부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는 모두 검토했다. 아직 예산팀으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했다. 받는 즉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보신 자료들에 대한 종합적인 피드백을 주시기 바란다. 저희 중운위가 최초에 해당 자료들을 요청할 때는 지난 1학기, 2학기 때에 요구했던 등록금환불 논거에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일환으로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런 맥락에서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다.

경경.부: 먼저 2021년 2학기 수업운영 가이드라인에서 확진환자와 접촉자에 대해서 격리했을 경우 출석인정제도가 나와 있는데, 출석인정 뿐만 아니라 격리기간동안 진행한 강의에 대해서 어떻게 강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다른 자료에서 강의평가 자료를 확인하면 학교 측에서 기존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것 같아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결과를 파악하고 말씀하신건지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

총: 두 번째 질의가 뭐였는지?

경경.정: 학교 측에서 처음에 강의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 작년에 저희가 학교의 수업 질이 좀 하락을 했다 이러한 주장에 학교 측에서 반박한 근거는 강의평가의 내용은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강의평가 자료를 확인했을 때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주장을 하신 건지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총: 알겠다.

총: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주시기 바란다.

부총: 일단 등록금환불의 추진 가능성을 보려면 아직 오지 않은 예산팀 자료를 마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강의평가 자료를 보면 비대면 강의가 대면 강의보다 강의평가가 낮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의 질만을 초점으로 잡고 가기에는 실제 학생 개인이 느끼는 교육의 질 변동이 크지는 않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야 하는데, 설문조사를 하고 토대로 방향성을 잡아야 하는 건데, 자료와 별개로 개인적인 생각은 설문조사를 할 때 등록금환불만을 공고한 전제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보다 지난 1학기 등록금환불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나 수업을 들은 경험이나 등록금환불 의제에 대한 학생들의 개개인의 생각들을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총: 다른 대표자분들 의견 없는지?

인문.정: 인문대학 말씀드리면 인문대학은 자료 한 개 씩 보고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은 검역소 출입인원 현황 같은 경우는 건물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빈도 수 추이를 알려고 자료를 요청 드렸던 건데 지금 코로나 상황일 때만 나와 있어서 전반적인 추이를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든다. 그래서 대면 때도 학교 방문 인원과 코로나 19였을 때 학교 방문 인원 전반적인 추이를 비교한 다음에 활용해야 하는 데 그걸 보기에는 부족한 자료로 생각이 든다. 그 다음에 수업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학사 운영 같은 경우는 학교 측에서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여러 가이드라인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느끼는 문제, 강의 재사용이라든지 미비한 강의계획서에 대한 교수에 대한 경고 이러한 정책들은 크게 나와 있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우분들께서 느꼈을 때 수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학교가 직접 나서서 뭔가를 해결해줬다는 느낌은 크게 안 드는 것 같다 지금의 두 자료를 봐서는. 인문대학은 현재 자료를 보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요청했던 게 온라인 강의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학교본부가 얼만큼의 예산지원을 했느냐, 그 다음에 어떠한 지원책을 만들었냐인데 그러한 부분은 크게 현재 학교에서 준 자료에서는 보이지 않다. 인문대학은 현재 자료를 보고 하는 전반적인 분석이나 평가는 이 정도가 될 것 같다.

총: 우선 대면 학사 시 인원확인은 불가하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 이유는 학교 건물을 들어갈 때 기기를 외부업체에 외주를 맡긴다. 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2개월 치 밖에 보관을 못 하기 때문에 대면학사 운영 시에 학교건물 출입인원은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말씀 드렸다.

인문.정: 인문대학도 그걸 알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저희가 생각해본 건 그래도 검역소를 출입했다는 건 학교를 방문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부생, 작년 1학기라든지 2학기 재학인원, 학부인원을 알 수 있다면 그것과 검역소 출입 인원을 비교해봐도 어느 정도의 결과는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그 자료를 이야기한 이유는 재학 인원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학교에 방문했다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추정치라도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자료로써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통공.부: 공대 질문 드려도 될지? 코로나19 검역소 출입인원 현황이 자료에서 전체 인원, 학부, 대학원 이런 식으로 총 합계를 내놓은 것 같은데 이 인원을 파악할 때 학생 몇 명이 어떤 빈도로 왔는지도 파악이 가능한

지?

총: 그렇게 세세하게는 못하지 않을지?

통공.부: 그래서 개인적으로 등록금... 그렇게 유의미한 자료인지 모르겠고 일단 검역소를 방문을 하는데 사실 검역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학교 식당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라는 개념이 없다. 검역소를 출입 했는지 안 했는지 스티커가 있는지 없는지 건물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게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이게 얼마나 유의미한 결과값인지 모르겠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등록금환불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다.

총: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해당 자료의 맹점은 검역소에 출입하지 않고 출입한 인원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그리고 해당 자료를, 저희 안전관리팀의 입장은 실제 기재된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출입했을 거라는 의견도 함께 전달해주셨다.

총: 확인했다.

인문.정: 의견 있는데 드려도 괜찮을지? 사실 인문대학도 자료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일정 부분은 공대 부회장님과 의견을 같이 한다. 저희도 현재 이 상황에서 최소한이라도 얻을 수 있는 걸 말씀드린거고, 사실상 현재 학교본부에서 온 자료들을 가지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여쭙고 싶은데 오늘 회의에서 어떠한 것에 관련 자료를 검토해서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도출해야 하는지 여쭙고 싶다.

총: 우선 자료를 검토하면서 논거의 변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했다. 말씀해주신대로 해당 자료들이 저희 논거를 제시하는 데 큰 효용을 못 느낀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더 이상 논의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요청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한 번 쯤은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다른 대표자분들도 자료의 실효성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주셨으면 좋겠다.

예술.정: 발언해도 될지? 저는 2021년 2학기 수업운영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저희가 2021년 1학기 등록금환불 관련자료 검토다 보니까 사실 수업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캐치를 하려면 1학기 가이드라인을 보고 거기서 어떤 게 부실하게 공지되었는지 그런 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온 자료가 2학기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공지이다 보니까 저만 그런지. 이걸 가지고 환불 관련 자료라고 하기 보단 1학기가 와야지 거기서 부실한 걸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이걸 보고서 앞으로 2학기 때 등록금이 아니라 매뉴얼이 어떤 게 부족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 논의안건에 안 맞는 자료라고 생각한다.

총: 덤으로 주신 것 같다. 말씀대로 2학기 가이드라인은 등록금환불 논의 맥락과 맞지 않는다고 생가한다. 저는 사실 1학기 학사운영 가이드라인도 큰 효용을 못 느끼겠다고 생각했다. 이미 1학기 학사는 끝이 났고 1학기가 진행되기 전의 가이드라인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학우분들이 체감했던 문제점들을 캐치하는 것이 시기상 적절치 않나라고 생각한다.

예술.정: 그래서 그 문제를 캐치하려면 1학기 가이드라인을 보고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시행이 안됐고, 어떤 점이 부족해서 이 모양 이 꼴이다 굳이 판단하려면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했다. 2학기 자료는 덤으로 온 거라 하면 할 말은 없겠다.

총: 우선 이 자료들을 보고 큰 실효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2021-1학기 등록금환불을 주장할 때 어떠한 논거를 주장해야 할지도 함께 제시해주시기 바란다. 논거가 정립되지 않았다면 논거를 마련할 프로세스도 함께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자과.비대위: 하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예대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학기 시작하기 전에 학교에서 약속했던 비대면 학사 관련 정책이나 수행하기로 약속했던 정책들을 얼만큼 이행을 했는지, 어떻게 코로나 상황을 대처를 해왔는지 알 수 있는 1학기 시작 전에 제시했던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 결과 어떻게 시행했는지 보고서를 보면서 비교하고, 1학기에 시행되지 않았던 정책들에 대해서 왜 시행하지 않았고 보충하기 위해 2학기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세웠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지금 주어진 자료들로는 등록금환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총: 저는 사실 생각이 좀 다른 게 가이드라인을 잘 따랐냐 안 따랐냐가 아니라 학우분들의 의견이 어떠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학우분들의 의견이 강의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강의평가 점수를 보면 대면 때, 비대면 때 큰 점수 차이가 없다. 그러면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지적했을 때 그것 또한 큰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다.

자과.비대위: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학우분들이 등록금환불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강의평가 자료만을 가지고 등록금환불에 대해서 어쨌든, 교내 이용 시설 이용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사과.정: 사과대 의견 드리면 타 단위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요청한 자료들로는 등록금환불의 논거를 오히려 마련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자료 요청할지에 대한 의견 수합이나 논의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에 어떤 자료를 요청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싶다. 그래서 1학기 학사운영만족도와 동시에 등록금환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1학기 학사운영에 대해서 학우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거나 학사운영만족도를 어떻게 느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취합을 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논거로 가져 가는 게 어떨지 의견 드리고 싶다. 그래서 저희는 자료요청의 단계가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해서 논거를 마련하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총: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저희가 자료 요청한 취지도 설문조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연속으로 나왔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자료들을 보고 설문조사의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중운위분들께서 의견을 내 주시면 감사하겠다. 대부분의 대표자들이 해당 자료를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해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진행할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

부총: 저는 일단 1학기 등록금환불에 대한 평가를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원래 사전자료를 받아보려는 의도가 설문조사의 방향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했던 것인데 자료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설문조사를 다각적으로 질문을 해서 그 설문조사 안에서 논거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학사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무튼 비대면 학사 경험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학우들이 실질적으로 학생회가 이끌어가고 있는 등록금환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묻는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다. 등록금환불의 필요성이 학생사회 안에서 제기된다고 하면 그것이 제기되는 이유와 근거도 명확히 찾을 수 있어야 학교에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도 해야 한다 이런 식의 논거를 가지고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왜 2021학년도 1학기에 대한 등록금환불도 올해 진행해야 하는지도 중운위가 찾았으면 좋겠다. 어떤 질문으로써 해야 될 지는 생각이 자세히는 안 된다.

경경.정: 우선 자료 활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자면 타 자료들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할지 저희도 자료만으로 보고 판단하기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었으나, 코로나19 검역소 출입인원 현황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면

일 때에 학교출입인원의 비율도 중요하지만 현재 2020-2학기에 비해서 2021-1학기가 확연하게 명수가 차이가 나는 것이 시설 미이용의 근거로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이 자료와 더불어서 시설 이용 외에 설문 항목을 만들어서 함께 주장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총: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게 사실 본부가 예산을 사용을 할 때 학생들이 시설을 이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 논거로서 효력을 가질지는 의문이 된다. 이 자료 자체가 큰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단순 수치상으로 근거를 제시하기도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

경경.정: 시설이용에 관련해서 물론 학교 측에서 비용이 없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주장해야 할 바는 학우분들께서 느끼시는 피해를 주장해야하기 때문에 시설이용에 대해서는 주장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자료에 대한 검토는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는 의견 드린다.

사과.정: 사과대 의견 드리고 싶은 게, 사실 검역소에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시설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뭔가 차라리 만약에 시설이용문제에 대해서 가져간다면 과방 폐쇄나 강의실 폐쇄를 논거로 가져 가는 게 어떨지 생각이 든다. 공간대여불가 등의 이유를 가져가는 게 어떨지, 타 단위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2021년 되고 한 번도 학생자치공간이라든지 강의실 대여를 어떤 사업이든 대여할 수 없어왔었고 지금 사실상 학생회관도 폐쇄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이용문제는 시설폐쇄의 문제, 강의실 공간대여불가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게 어떨지.

총: 1학기 때 지난겨울에 진행한 환불 설문조사 내용의 근거해서도 피드백 주셔도 된다.

통공.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작년 겨울에 학교로부터 자료를 요청 받아서 2020년도 가결산안이랑 21년도 본예산 자료를 받아 봤던 걸로 기억을 한다. 저희가 19년도 자료도 받았던 적이 있는지?

총: 19년도 결산안 말씀하시는 건지? 잠시만요. 받은 기억은 없는데 저희가 열람 가능하다. 대학알리미라는 홈페이지에서 2019년도 결산안은 확인이 가능하다.

통공.부: 저희가 등록금환불에 대한 협의를 할 때 19년도 자료를 저희가 확인했던 적이 있었는지?

총: 19년도는 안 봤던 걸로 기억한다.

통공.부: 네. 안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일단 코로나 검역소 출입인원 현황을 봤을 때 드는 생각이 일단 아까 20년도 2학기보다 21년도 1학기가 출입인원이 줄었다 하시는데 저는 통계기간차이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학년도 2학기보다 21년도 1학기 통계 기간이 좀 짧은 거 같은데, 이것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봐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기에 환불 자료로 확인하기에 20년도와 21년도를 비교하는 것보다 어쨌든 저희가 주장을 하고자 하는 바가 학우들이 학교를 오지 못했는데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예산이 큰 변동 없이 지출이 되고 있다는 게 학교와 저희 입장 차이다. 저는 자료를 비교하려면 대면일 때 학교에서 이런 시설물 사용 때문에 들었던 예산 비용과 저희가 학교를 못 가는 상황이 되었는데 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얼마정도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해야 근거로 삼을 수 있지 않을지? 비대면과 비대면을 비교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판단을 한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학교를 저희가 19년도에도 어쨌든 대면 수업을 진행했으니까 대면 수업을 꾸준히 진행할 때 시설물 관리비라든가 학교에서 주장하는 전기료라든가 얼마나 나갔는지와 21년도에 비대면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예산 차이가 얼마 있는지를 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린다.

경경.정: 사과대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자치공간 이용불가를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저희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만약에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자치공간 이용불가에 대한 내용은 따로 자치공간 이용불가

에 따른 피해사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주관식으로 답변을 쓰도록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출입빈도 확인 또한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시설 이용, 방역 내용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자료에서 파악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저희가 조사한 설문조사 출입빈도 확인은 많은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낼 것 같아서 빈도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해당 내용은 학교 시설을 이용했습니까 이렇게가 아닌 학교 시설을 주 몇 회 이용했냐는 질문으로 빈도 확인으로 들어가야 저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비대면으로 인한 불편사항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내용을 저희가 항목화해서 객관식으로 조사하는 것은 전부다 불편한 내용인데 그거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순위를 매기는 듯한, 어떤 게 중요하다라고 학교 측에서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저희가 생각하는 불편사항을 나열하고 이 외에 추가적으로 불편사항이 있습니까로 질문을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다.

인문.정: 인문대 경경대 회장님 말씀에 이어서 나름대로 설문조사 항목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어 마이크를 켰다. 일단 이게 엄청 구체적이진 않지만 첫 번째로는 등록금환불의 필요성 여부를 학우분들께 여쭤봐야 할 것 같다. 두 번째로는 경경대 회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건물 이용의 회수는 다르기 때문에 빈도수로 물어봐야 할 것 같다. 건물 이용의 빈도수가 크게 들어가야 할 것 같다. 저희가 인문대학에서 임시 인학대회를 진행하고 학생분들을 비대면으로 만나봤을때도 건물 이용을 하지 못했다는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이 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강의환경에 대해서도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 사실 비대면 강의가 해마다 발전하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사실 대면강의와 비대면 강의에 엄연한 질적 차이는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19학번 이상과 20학번 이하를 나누어서 19학번 이상의 학우분들께는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의 질적 차이를 물었으면 좋겠고, 20학번 이하 분들에게는 비대면 강의 환경에서 느꼈었던 만족감을 조사했으면 좋겠다. 네 번째로는 아까 경경대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대면 학사에 대한 추가적인 불편사항을 조사하면 좋겠다. 다섯 번째는 등록금 대비 전반적인 학사운영에 대한 만족감을 여쭤봤으면 좋겠다. 학사운영에 대한 만족감을 제 생각에는 주관식으로 받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는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환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받아보는 골자로 짜여지면, 학우분들의 의견이 사실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뒷받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총: 그럼 논의안건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2. 전학대회 의결 관련 사과문 검토

총: 사과문 파일은 화면으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다. 우선 3분간 정독시간 갖도록 하겠다.

[내용 검토]

총: 중간에 오타나 맥락상 중복 표현의 일부는 저희가 알아서 수정을 하고 게시하도록 하겠다. 가부결 결과에 변동가능성이 있는 안건에 대한 중운위 분들의 최종 확인을 해주시면 게시하도록 하겠다.

부총: 저번 중운위에서 집행부 측에서 20번 안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가 판단한 바는 이렇다. 이에 대해서 중운위분들 의견이다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이대로 괜찮다면 이대로 발표하는 것으로 하겠다.

경경.정: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의결 진행하는지?

총: 의결을 따로 진행하진 않으려고 했다. 사실 이 입장문 자체가 의장단의 명의로 게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운위 차원에서 의결은 필요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다면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예술.정: 추가의견 없다.

자과.비대위: 추가의견 없다.

사범.부: 사범대 추가의견 없다.

(이하 동일의견)

경경.정: 추가의견 없고 의결 진행 안해도 될 것 같다.

사과.정: 별 건 아니고 표결산출과정에 있었던 세 가지 문제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분 각각 볼드처리 되었으면 좋겠다. 이외 의견 없다.

인문.정: 인문대학 별도 의견 없다.

부총: 그러면 20번 안건의 처리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시는지?

약학.부: 사실 내용 전반적인 문제보다는 세 번째로의 두 번째 줄에 20번 안건이라고 적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뒤에 이 내용이 20번 안건인가 싶어서, 따옴표 안에 있는 게 20번 안건이 맞는지?

총: 네. 맞다.

약학.부: 감사하다. 이상이다.

부총: 20번 안건 처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란다.

사과.정: 사과대 20번 의결안건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았는데 사실 정석대로 가면 사과문에서는 전학대회 무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학대회 무효는 아니더라도 해당 장 무효라는 결과는 도출이 되어야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든다. 저희가 전학대회 상황이 정확히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아서 이 부분은 속기를 다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긴 한데, 20번이 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10장 전체에 대한 의결을 진행 했는데, 10장 전체에 대한 의결이 가결이 되었다면 삭제되지 않은 원안이랑 개정안이랑 공존하게 되지 않는지? 20번이 부결되었다면 20번이 가결된 결과와 결국은 달라지는 건 아닌지?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집이랑 속기록을 조금 더 찾아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그 장의 조항 중에 의결결과로 가부결이 바뀌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해당 장에 대한 의결은 무효화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의견 드린다.

총: 회칙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원안 삭제 안건이 가결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기억한다. 이게 부결이 된다면 말씀해주신 대로 공존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겠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사과.정: 맞다. 근데 사실 의결이라는 게 가결의 경우의 수와 부결의 경우의 수가 있지 않은가. 방금 총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거면 가결의 경우의 수와 부결의 경우의 수에 회칙 내용이 바뀌게 되는 거 아닌지? 문제가 되는 20번이 부결처리도 됐을 수 있는데 가결 처리가 된 게 문제인 건데, 가결 처리 됐을 때랑 부결 처리 됐을 때는 결과값이 달라지는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 조항이 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총: 10장 58조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과 위원 선임에 대한 조항인 걸로 기억을 하고, 이 조항에 대해 투표를 부쳤던 건 그 전 조항이었던 57조가 합의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으로 기억을 하는데 57조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58조 삭제에 대한 표결을 부쳤던 것이고, 경우의 수를 따진다고 하면

20번 안건이 부결되어서 20번 안건이 삭제되지 않더라도 57조 안건이 삭제됨에 따라서 10장 자체가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10장 개정안 원안 자체를 삭제했던 이유와 동일해서, 58조에 대한 표결은 지금 정상적인 표결 방식이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유효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10장 자체가 무효화 처리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과.정: 네. 제가 마이크를 켜고 있었다. 혹시 제가 오늘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오늘 안건이 등록금환불에 대한 안건인 줄 알았다. 혹시 이 부분 다음 주 중운위에서 한 차례 더 논의할 수 있는지? 저는 전후관계, 20조의 가결과 부결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싶다. 사실 전학대회 의결이라는 건 확실해야 하는 범주라고 생각이 들고, 자료집과 속기록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싶은데, 다음 주 월요일에 한 차례 더 논의해보고 최종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총: 우선 최대한 빠르게 게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임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 한 번 더 상정해서 논의한다면, 해당 문단에는 중운위 합의한 사항이라는 내용까지 추가해서 입장문 게시하도록 하겠다.

사과.정: 좋다. 사실 안건지를 오늘 전달 받은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단운위 회의가 있었어서 안건지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다.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월요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제가 궁금한 게 의결안건 20번이라는 게, 제58조 위원장 신설 조항 맞을지?

부총: 개정안에 있는 신설 조항이었다.

총: 원안은 저희 중운위가 발의한 것을 원안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총: 이상 회의 마치도록 하겠다. 내일까지 단위요구안 보내주시기 바란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중감위원장 지원모집 마감하도록 하겠다. 그 후에 지원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다. 이상으로 중운위 임시회의 폐회하도록 하겠다. 고생 많으셨다.

<폐회>